

2022년 제8차 공공미술위원회 심의결과

안 건	2022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
심의결과	승인
심의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소의 적정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- 나무 느낌의 소재가 주위와 잘 어우러지고 조형과 크기 등이 적절히 잘 정리되어 보임 - 숲의 소리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대상지 특성을 반영함 - 공연장 주변에 설치하여 공연 등의 행사가 있을 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함 ○ 작품의 예술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도도’ 와 ‘레레’ 는 이용자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 - 이전 제안보다 훨씬 장소와 잘 어울리나, 럭스틸 소재는 처리 방식에 따라 녹이 발생할 수 있어 마감처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. - 시각장애를 가진 이의 글에서 출발한 취지는 좋으나 공공미술로서 작품 전달력이 미미함. 도레미파솔로 이어진 구성의 이유가 연결성이 약함 ○ 공공성 및 안전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미미’ 가 실제 의도된 내용과 형식에 접근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 - ‘레레’ 의 하단부 L형 모서리는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C자형 곡선 등으로 수정 필요 - 시민들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작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이 보완되었으면 함 - 규모가 있는 작업인 만큼 철저한 안전성 대비가 필요함 ○ 관계성·소통성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 의도대로 된다면 시민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작품으로 기대됨 - 시민아이디어 구현인 만큼 제안작품 구현 사전 워크숍 진행하고 의견을 반영할 것 -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조형적으로도 잘 정리가 되어 보임 - 시민 워크숍 결과 중 공공미술이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영되길 희망함(퍼포먼스, 낭송회, 감각 체험프로그램 등)

- 작품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적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음

○ 기타

- 재심에 보완된 설치물은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설치될 것으로 보여 승인함

- 공간과 조화로운 상태와 수준의 결과이기 바람

- 현장 시공 전 목업 등을 통해 작가가 의도한 감각의 경험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사전 점검 후 시공하는 것을 추천함